

2020행언나-03

2 영조의 뒤를 이은 국왕 정조는 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을 만들어 연호궁이라 불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후, 오래전 사망한 자기 아들인 효장세자를 정조의 부친으로 삼겠다고 공포했다. 이런 연유로 정조는

3 이처럼 후궁의 사당이 늘어났으나 그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순종은 1908년에 **대빈궁**, **연호궁**, **선회궁**, **저경궁**, **경우궁**을 **육상궁** 경내로 모두 옮겨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했으나, 이 사당들에 대한 제사는 유지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 생모인 **엄씨의 사당** **덕안궁**도 세워졌는데, 이것도 **육상궁** 경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육상궁** 경내에는 **육상궁**을 포함해 후궁을 모신 사당이 모두 7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곳을 **칠궁**이라 부르게 되었다.

3명 (수원 하씨, 희빈 장씨, 수빈 박씨)

고종 - 영친왕 (친왕 x)
영친왕 (친왕 x)



문 2. 다음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20행언나-16

□ 표현은 속성을 나타낸다. 가령 “붉다”라는 표현은 붉음이라는 속성을 나타낸다. “붉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붉음이라는 속성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비교 가능한 속성 P와 그것의 비교급에 해당하는 관계 R에 대해서, P를 아는 것이 R을 아는 것에 선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좋음을 알 수 있어야 a가 b보다 더 좋음을 알 수 있으며, 훌륭함을 알아야 c가 d보다 더 훌륭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붉음이라는 비교 가능한 속성에 대해서, 저 사과가 이 사과보다 더 붉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과보다 저 사과가 붉음이라는 속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표현 “더 좋다”가 어휘의 진화과정에서 “좋다” 다음에 등장했고 “훌륭하다”가 “더 훌륭하다”에 앞서 사용되었다.

㉠ 하지만 비교 가능한 속성을 아는 것이 비교급 관계를 아는 것보다 선행하며, 표현의 등장에서도 그와 같은 선행이 있다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 다음의 두 가지 반박이 있다. 첫째, 비교급 관계를 아는 것이 속성을 아는 것보다 선행하는 명백한 사례들이 있다. 빠름이라는 속성과 더 빠름이라는 관계를 생각해보자. 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빠름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우리는 더 빠름이라는

관계를 대상들에 적용함으로써 “빠름”의 의미를 이해한다. 둘째,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언제나 그 속성의 비교급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언어에는 비교 가능한 속성 Q의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만 있고 정작 Q를 나타내는 표현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 경우, Q를 나타내는 표현의 등장은 Q의 비교급 표현의 등장에 앞설 수 없다.

— < 보 기 > —

- ㉠ a가 b보다 c에 더 유사함과 같은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을 강화한다. → 비교급 관계가 선행한다는 함정
- ✓ 우리가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한지 판단할 수 없더라도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안다는 것은 ㉠을 강화한다. → 무관함
- 인간임이라는 속성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다”와 같은 표현은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을 강화한다. → 무관함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기존 주장

— 이해 순서: 속성 → 비교급 관계

— 표현 순서: 속성 → 비교급 관계

* 반박(㉠)

— 이해 순서: 비교급 관계 → 속성

— 표현 순서: 비교급 관계 only

문 3.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2020행언나-10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심리적 외상의 실재가 인정되었다. 참호 안에서 공포에 시달린 남성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전멸될지 모른다는 위협에 억눌렸으며 동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지켜보며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다. 그들은 울며 비명을 질러대고 얼어붙어 말이 없어졌으며,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기억을 잃으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정신적 증후군의 발병은 신체적 외상이 아니라 심리적 외상을 계기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폭력적인 죽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받는 심리적 외상은 히스테리에 이르게 하는 신경증적 증후군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2 전쟁에서 폭력적인 죽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받는 심리적 외상을 계기로 발생하는 '전투 신경증'이 정신적 증후군의 하나로 실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학계의 전통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간의 의학적 논쟁은 이제 환자의 의지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전통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영광을 누려야 할 군인이 정서적인 증세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전투 신경증을 보이는 군인은 체질적으로 열등한 존재에 해당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이 환자들을 의지박약자라고 기술하면서 모욕과 위협,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를 옹호하였다. 반면 ㉡ 진보주의자들은 전투 신경증이 의지력 높은 군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신분석 원칙에 입각하여 대화를 통한 인도적 치료를

4 옹호하였다. 그들은 전투 신경증을 히스테리의 한 유형으로 보았지만 히스테리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경멸적인 의미가 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명명법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인도적 치료를 추구했던 진보주의자들은 두 가지 원칙을 확립하였다. 첫째, 용맹한 남성이라도 압도적인 두려움에는 굴복하게 된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는 애국심이나 적에 대한 증오보다 강한 전우애다.

- ① ㉠과 ㉡의 히스테리 치료 방식은 같다. **모욕 위협 처벌 vs 대화를 통한 인도적 치료**
- ② ㉠과 ㉡은 모두 전투 신경증의 증세가 실재한다고 본다. **→ 전투 신경증을 보는 시야를 인정하고 있음**
- ③ ㉠과 ㉡은 전투 신경증이 어떤 계기로 발생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 발생 계기는 동일하게 봄**
- ④ ㉠과 ㉡은 모두 환자들에게 히스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고 본다. **→ ㉡만 해당**
- ⑤ ㉡은 ㉠보다 전투 신경증에 의한 히스테리 증상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 X**

문 4. 다음 <표>는 ‘갑’국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10개 직무역량 중요도의 산업분야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행자나-08

<표> 신입사원의 직무역량 중요도 (단위: 점)

산업분야 직무역량	신소재	게임	미디어	식품
의사소통능력	4.34	4.17	4.42	4.21
수리능력	4.46	4.06	3.94	3.92
문제해결능력	4.58	4.52	4.45	4.50
자기개발능력	4.15	4.26	4.14	3.98
자원관리능력	4.09	3.97	3.93	3.91
대인관계능력	4.35	4.00	4.27	4.20
정보능력	4.33	4.09	4.27	4.07
기술능력	4.07	4.24	3.68	4.00
조직이해능력	3.97	3.78	3.88	3.88
직업윤리	4.44	4.66	4.59	4.39

※ 중요도는 5점 만점임.

<보 기>

- ㄱ. 신소재 산업분야에서 중요도 상위 2개 직무역량은 ‘문제해결능력’과 ‘수리능력’이다.
- ㄴ. 산업분야별 직무역량 중요도의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미디어’이다.
- ㄷ. 각 산업분야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직무역량은 ‘조직이해능력’이다.
- ㄹ. 4개 산업분야 직무역량 중요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직무역량은 ‘문제해결능력’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프라임 PSAT 온라인 스터디 미니테스트 제 2 회

문 5. 다음 <표>는 3D기술 분야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의 국가별 영향력지수와 기술력지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자가-34

<표> 3D기술 분야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의 국가별 영향력지수와 기술력지수

국가 \ 구분	특허등록 건수(건)	영향력지수	기술력지수
미국	500	(1.2)	600.0
일본	269	1.0	269.0
독일	()	0.6	45.0
한국	59	0.3	17.7
네덜란드	(30)	0.8	24.0
캐나다	22	(1.4)	30.8
이스라엘	()	0.6	10.2
태국	14	0.1	1.4
프랑스	()	0.3	3.9
핀란드	9	0.7	6.3

- ※ 1) 해당국가의 기술력지수 = 해당국가의 특허등록건수 × 해당국가의 영향력지수
- 2) 해당국가의 영향력지수 = $\frac{\text{해당국가의 피인용비}}{\text{전세계 피인용비}}$
- 3) 해당국가의 피인용비 = $\frac{\text{해당국가의 특허피인용건수}}{\text{해당국가의 특허등록건수}}$
- 4) 3D기술 분야의 전세계 피인용비는 10임.

<보 기>

㉠ 캐나다의 영향력지수는 미국의 영향력지수보다 크다. 1.4 > 1.2

㉡ 프랑스와 태국의 특허피인용건수의 차이는 프랑스와 핀란드의 특허피인용건수의 차이보다 크다. 25 > 24

㉢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국 중 한국의 특허피인용건수는 네 번째로 많다. → 6번째

㉣ 네덜란드의 특허등록건수는 한국의 특허등록건수의 50% 미만이다. 30 > 59 × 50%

- ①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14 > 25
39 > 24
63 > 24

$\text{기술력지수} = \text{특허등록건수} \times \frac{\text{영향력지수}}{10} = \text{특허등록건수} \times \frac{1}{10} \times \text{피인용비}$

$\therefore \text{피인용건수} = \text{기술력지수} \times 10$

문 6. 다음 <표>는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 상위 9개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하여 A ~ D에 해당하는 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20행자나11

<표>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 상위 9개 기업의 매출액
(단위: 십억 달러, %)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

40사
35~37.6

29.7↓

구분 기업	화학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매출액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
비스프	72.9	17.8	90.0	81.0
A	62.4	29.7 >25	62.4	100.0
B	54.2	28.7 >25	()	63.2 <66.7
자빅	37.6	5.3	39.9	94.2
C	34.6	26.7 >25	55.9 ↓	67.0
포르오사	32.1	14.2	55.9	57.4
D	29.7	10.0	()	54.9 <66.7
리오넬바셀	28.3	15.0	34.5	82.0
이비오스	23.2	24.7	48.2	48.1

※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 = $\frac{\text{화학제품 매출액}}{\text{총매출액}} \times 100$

→ 총매출액 = $\frac{\text{화학제품 매출액}}{\text{화학제품 매출액 비율}/100}$

<조 건>

- '드폰'과 'KR 화학'의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각각 해당 기업의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의 80% 미만이다.
- <1> ○ '백슨모빌'과 '시노텍'의 20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각각 총매출액에서 화학제품을 제외한 매출액의 2배 미만이다.
- <2> ○ 2019년 총매출액은 '포르오사'가 'KR 화학'보다 작다.
- <3> ○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자빅'이 '시노텍'보다 크다.

	<u>A</u>	<u>B</u>	<u>C</u>	<u>D</u>
①	드폰	백슨모빌	KR 화학	시노텍
②	드폰	시노텍	KR 화학	백슨모빌
③	백슨모빌	KR 화학	시노텍	드폰
④	KR 화학	시노텍	드폰	백슨모빌
⑤	KR 화학	백슨모빌	드폰	시노텍

<1> 화학 < (총 - 화학) × 2

→ 화학 × 3 < 총 × 2

→ $\frac{\text{화학}}{\text{총}} < \frac{2}{3} \approx 66.7\%$

= 화학제품 매출액 비율

∴ B, D = 백슨모빌, 시노텍

<2> 2019년 C 총매출액

= $\frac{34.6}{67\%} < \frac{34.6}{66.7\%} \div \frac{117.3}{\frac{2}{3}} = 51.9$

∴ C ≠ KR 화학

→ 2018년 < 2019년 × 0.8 → $\frac{2019년}{2018년} > \frac{1.25}{0.8} = 1.25$ (배율)
→ 증가율 > 25%

→ B or D (⑤ 제거)

→ KR 화학 ≠ C (①, ② 제거)

→ 시노텍 ≠ B (④ 제거)

문 7. 다음 <표>는 산림경영단지 A ~ E의 임도 조성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경영단지는?

2020철자모-15

<표> 산림경영단지 A ~ E의 임도 조성 현황
(단위: %, km, km/ha)

구분 산림경영단지	작업임도 비율	간선임도 길이	임도 밀도
A	30	70	15
B	20	40	10
C	30	35	20
D	50	20	10
E	40	60	20

※ 1) 임도 길이(km) = 작업임도 길이 + 간선임도 길이

2) 작업임도 비율(%) = $\frac{\text{작업임도 길이}}{\text{임도 길이}} \times 100$

3) 간선임도 비율(%) = $\frac{\text{간선임도 길이}}{\text{임도 길이}} \times 100$

4) 임도 밀도(km/ha) = $\frac{\text{임도 길이}}{\text{산림경영단지 면적}}$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15
1/20 = 0.5/10
1/40 = 0.5/20
1/25 = 0.4/10
1/20

합 = 100% (여사건 관계)
→ 임도 길이 = $\frac{\text{간선임도 길이}}{\text{간선임도 비율}}$

문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20행상나-04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이 변제해야 함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

문 9. 다음 글과 <진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와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20행상나-14

- 어제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는 다음 셋 중 하나이다.
99★2703, 81★3325, 32★8624
- 어제 사건에 대해 진술한 목격자는 甲, 乙, 丙 세 명이다.
이 중 두 명의 진술은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한 명의 진술은 두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에 대한 것이다.
-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는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 편의상 차량 번호에서 ★ 앞의 두 자리 수는 A, ★ 뒤의 네 자리 수는 B라고 한다.

<진술 내용>

- 甲: A를 구성하는 두 숫자의 곱은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곱보다 작다.
- 乙: B를 구성하는 네 숫자의 합은 A를 구성하는 두 숫자의 합보다 크다.
- 丙: B는 A의 50배 이하이다.

	첫 번째 사건의 가해차량 번호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①	99★2703	甲
②	99★2703	乙
③	81★3325	乙
④	81★3325	丙
⑤	32★8624	丙

두명의 진술에는 부합하고
한명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아야 함

99★2703 81★3325 32★8624

×	○	○
×	○	○
○	○	×

→ 두 번째 사건의 목격자

문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태은이의 만족도 점수의 합은?

2020행상나-18

태은이는 모처럼의 휴일을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 1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외식, 전시회 관람, 쇼핑을 한 번씩 한다. 태은이는 만족도 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항목별로 최대 6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지출한다. 다음은 항목별 지출에 따른 태은이의 만족도 점수이다.

구분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외식	3점	5점	7점	13점	15점	16점
전시회 관람	1점	3점	6점	9점	12점	13점
쇼핑	1점	2점	6점	8점	10점	13점

- ① 23점

② 24점

③ 25점

④ 26점

⑤ 27점

1. 한계비용(만원당 만족도 점수)이 가장 높은 항목 선택
→ 외식 4만원 (13점)
2. 남은 금액 6(=10-4)만원으로 가능한 최대 점수 조합
→ 전시회 관람 5만원 (12점) + 쇼핑 1만원 (1점)
∴ 최대 만족도 점수 합 = 13 + 12 + 1 = 26점